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연합감리교회에 보내는 청원서를 위해 교인 서명을 받습니다. 예배 마친 후 안내 테이블에 놓인 용지에 이름과 주소와 함께 서명하시면 됩니다. 청원의 내용은:
  -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도록
  - 세광교회가 이 자리에서 감당할 사명을 - 예배, 전도, 섬김 -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7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변명균 집사 (시편 14편)

이번 주 친교: 안상민 집사, 제임스 리 집사

다음 주 친교: 하영미 집사, 이미경 집사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 대표기도(Invocation) ----- 이민영 목사
- 봉헌찬송 ----- “종으신 하나님” -----다함께
-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 성경봉독(The Word of God)행(Acts) 13:21-23, 38-39; 14:6-15; 17:30-31 -----인도자
- 설교(Sermon)-----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 이민영 목사
-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 찬송(Hymn) ----- 494장 (통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다함께
- 대표기도(Invocation) ----- 시(Psalm) 89:20-37 ----- 백희진 집사
- 찬양(Choir) ----- 세광 찬양대
-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 성경봉독(The Word of God)행(Acts) 13:21-23, 38-39; 14:6-15; 17:30-31 -----인도자
-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 설교(Sermon)-----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 이민영 목사
- \* 찬송(Hymn) ----- 540장 (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함께
-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사도행전(Acts) 11:19-30; 12:15-13:3)**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예루살렘 사도들에 비하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뤄진 교회였지만 세계선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성원이 된 교회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혈통과 과거, 계급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교회가 가진 어떤 자량과 특성 보다도 주님의 교회 된 것이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사역을 살펴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됨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변방에 새로 생긴 교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하고 교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받아들였고, 예루살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신생 교회이지만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지역과 인종을 넘어 그리스도의 교회로 연합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형제 교회들과, 지역의 교회들과 형제 교회로 연합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신임을 얻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은, 배경이 비슷해서도, 마음이 맞아서도,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당부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했고, 리더십을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확대해 갔고, 흠어져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만큼 자연스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배경과 구성으로 인해 주저했고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와 상황의 압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뜻 가운데 있고, 시대의 흐름에 앞선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뜻에 저항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며 모교회로서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성령님의 선하신 일을 인정하며 동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세계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었다고 우월권을 주장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권을 존중했습니다. 있는 자리, 생긴 모양대로 사용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어서, 유대인이어서, 중심이어서, 변방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두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 성령님의 선한 일은 -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려 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역지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회가 되려고 이사가거나 구성원을 모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좋은 교회가 되어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기 위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섬기고,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교회 되기를 힘씁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나라에서 행하시는 큰 일에 동참하기 위해 편안하고 익숙한 범위를 벗어나 순종하는 담대함도 갖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용 받는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